

# 松江 鄭澈 文學의 特質

權 斗 煥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I

松江 鄭澈(1536~1593)의 문학적 성취는 한국문학사의 한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문시가 방면에서 이룩한 업적은 국문학 연구 초창기부터 高評과 賞讚의 대상이 되어 왔고,<sup>1)</sup> 뒤늦게 조명을 받기는 했지만 한시 방면에서 이룩한 업적 역시 국문시가에 못지 않은 문학적 성취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sup>

그러나 송강이 서거한 지 만 4백년, 그의 문학 작품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도 6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의 문학적 성취와 그에 대한 평가를 돌이켜 보면 대체로 동어 반복에 의한 반추만 거듭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와 논평들이 송강은 훌륭한 작가이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남겼고, 훌륭한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훌륭한 작가라는 식의 순환 논리를 적용하였을 뿐인 것이다. 이 점은 송강 문학의 특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늘 우리들의 귀에 익은 몇 개의 어구들을 되풀이해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송강 문학에 대하여 관심을 보여 온 연구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었을 다음과 같은 논평 자료는 기왕의 송강 문학 연구가 반성해야 할 점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① 관동별곡은 송강 정철이 지은 것으로 관동지방 산수의 아름다움을 차례로 들되 그윽하고 빼어나고 이상하고 야릇한 장관을 말로 다하였으니 경물 묘사의 교묘함과 조어의 기특함은 참으로 악보의 절조라고 하겠다.

② 사미인곡은 시경의 미인이란 두 글자를 조술하되 시국을 걱정하고 임금을 사모하는 뜻을 붙인 것이어서 참으로 영종의 백설곡이라고 하겠다. 속사미인곡은 전사에 미진한 생각을 다시 서술한 것으로 말이 더욱 공교롭고 뜻이 더욱 치절하여 공명의 출사표와 백중환 것으로 볼 만하다.<sup>3)</sup>

- 1) 李秉岐, “松江歌辭의 研究 1, 2, 3”, 《震檀學報》제4, 6, 7호(서울: 震檀學會, 1936. 4, 11; 1937. 5)와 趙潤濟, 《朝鮮詩歌史綱》(京城: 近澤商店印刷部, 1937) 등은 송강의 문학적 성취에 대한 국문학 연구 초창기의 업적으로서, 송강에 이르러 가사 문학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역설하고 있다.
- 2) 최근에 송강 문학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松江文學研究論叢》(국학자료원, 1993)이 간행되었고, 이 책에 金均泰, “鄭松江의 漢詩 研究”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송강 서거 4백주년을 맞아 충북대에서 개최한 추모학술회의에서 金聖基,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自然觀”, 《人文學志》제 9집 (충북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이 발표되어 송강 한시의 특질이 새롭게 재검토된 바 있다.
- 3) ① 關東別曲 松江鄭澈所製 而歷舉關東山水之美 說盡幽遠詭怪之觀 狀物之妙 造語之奇 信樂譜之絕調也 ② 思美人曲 祖述詩經美人二字 以寓憂時戀君之意 亦郢中之白雲 續思美人曲 復伸前詞未盡之

이 논평은 이미 3백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송강 문학이 ‘경물 묘사의 교묘함’ 또는 ‘조어의 기특함’과 같은 표현상의 특질로서 악보의 절조가 되었으며, ‘우시연군’의 주제를 펼친하게 다름으로써 중국의 名歌 또는 名文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평은 오늘의 연구자들이 송강 문학의 특질을 정리할 때 흔히 사용하고 있는 ‘自然美와 國語美의 發見’이라든지 ‘忠臣戀主之詞’라든가 하는 어구들이 그야말로 고집에 찬 연구를 통하여 찾아낸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문학적 탐구가 과거의 사실을 그 실상대로 재확인하는 작업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송강 문학 연구가 그 문학성의 재해석이나 재평가에 소홀했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송강 문학의 연구는 이제 그의 문학에 대한 해석과 그 문학적 성취에 대한 평가를 좀더 심도있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송강 문학 연구가 지닌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기왕의 송강 문학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보다는 비교적 새로운 접근 방법을 보여주는 입론들을 대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2

송강 문학 연구에 있어서 비교적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조선시대 시가 문학의 특질을 지역성과 관련하여 규명하고자 한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丁益燮 교수의 《湖南歌壇研究》는 이 방면의 연구에 선편을 잡은 것으로 송강이 호남가단의 주역의 한 사람임을 입증한 바 있다.<sup>4)</sup> 俛仰亭과 息影亭 등 亭子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의 교유·사우 관계 등을 추적하여 면양정 중심의 면양정가단과 식영정 중심의 성산가단의 형성과 문학 활동을 확인하여 그 문학적 특질을 규명하고, 宋純, 金麟厚, 林億齡, 金成遠, 高敬命, 鄭澈 등으로 이어지는 호남가단의 문학적 특징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정교수의 이러한 입론은 송강 문학의 특질을 호남가단이라는 집단적 문학 활동과 관련하여 파악한 것이기에 동어 반복적 반추에 의한 고평과 찬사로 일관한 기왕의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새로운 연구의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호남가단연구》의 성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교수의 입론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교수는 호남가단이라는 집단의 문학 활동에

思 語益工而意益切 可與孔明出師表伯仲看也(洪萬宗의 《句五志》 참조, 번역문은 《國譯 松江集》 하권, 458쪽에서 재인용). 金萬重의 《西浦漫筆》, 權輶의 《石洲集別集》, 金春澤의 《北軒集》 등에서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송강 가사의 문학적 특질을 논하고 있다.

4) 丁益燮, 《湖南歌壇研究》(서울: 진명문화사, 1975); 《改稿 湖南歌壇研究》(서울: 민문고, 1989).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다음과 같이 송강 문학의 독자성마저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강가사의 평가문제에 있어서 ‘던양정가’와 ‘성산별곡’의 대교 외에 조위의 ‘만분가’와 송강의 전후 ‘미인곡’, 그리고 백광홍의 ‘관서별곡’과 정철의 ‘관동별곡’을 새로 비교 분석해 보았으니, 그 결과 송강가사는 전술한 ‘던양정가’에서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위 두 작품에서도(특히 관서별곡) 구성, 표현, 어구 배열 등과 같은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 가풍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모방한 흔적이 뚜렷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송강가사의 평가는 재고되어야 함을 설파했고, 과거와 같은 獨創이니, 最高峰이니, 劃期的이니 하는 嗜癡과 執念은 고쳐야 할 것을 주장해 보았다.<sup>5)</sup>

이와 같이 정교수는 송순, 김인후, 백광홍 등의 호남가단에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한 반면에 송강의 역할과 그 문학적 성취는 폄하하고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 송강에게 붙여진 ‘독창’이니 ‘최고봉’이니 하는 평가가 ‘기벽’이나 ‘집념’에 지나지 않음을 주장한 것이다. 송강 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이러한 반론은 송강 문학이 호남가단의 집단적 문학 특성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연구사에서처럼 송강 문학을 우리 시가사의 한 정점으로 다루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까지 내포한 것으로서 관련 연구자들을 당혹하게 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송강 문학은 ‘영향’이나 ‘모방’의 결과일 뿐이라는 정교수의 새로운 주장이 있는지 20년이 지나도록 관련 학계는 아무런 반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일차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호남가단’의 활동은 인정하지만, 송강의 ‘독창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교수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강 문학 연구가 4백년 전의 송강과의 교감은커녕 오늘날의 연구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개 약진을 계속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송강 문학에 대한 지나친 고평과 상찬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그 나름대로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고평과 상찬이 별다른 근거없이 동어 반복을 되풀이해 온 것이라면, 그 까닭 또한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기왕의 연구 성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교수의 입론이 학계에 제출된 이상 일언반구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교수의 논의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의 문학 활동과 개인의 문학 활동을 어떻게 종합하고 또 분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정교수의 경우 집단적인 문학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학 활동은 모두 소속 집단의 문학 활동의 일부로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집단화 또는 종합화에는 일단 성공하였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개성과 독창성이 강조되어야 할 문학활동에 있어서의 개별화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교수는 호남가단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송강의 작품을 비

5) 丁益燮, 앞의 책, 390쪽에서 391쪽 참조.

교합에 있어서 공통점과 유사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차이점을 규명하는 데는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송강의 문학이 당대는 물론 후대에 이르기까지 높이 평가되어 왔다는 사실은, 제아무리 동일한 제재나 표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송강의 문학만이 지니고 있는 ‘독창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송강의 문학이 지닌 ‘독창성’에 모아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교수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가령 정교수는 면앙정 송순과 송강 정철 등이 같은 시기에 전라도 담양 땅에 머물면서 스승과 제자 또는 선배와 후배로서 교유가 있었다는 점, 면앙정과 식영정을 오가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호남가단이라는 집단적인 문학 활동이 있었음을 상정하고, 그들의 문학 활동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면앙정의 <면앙정가>와 송강의 <성산별곡>에 대해서는 정밀한 대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하고, 후자가 전자를 전적으로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가. 두 작품은 자연승경과 사계의 경물을 노래한 서경적인 가사이다.

나. 두 작품은 서사—본사(사계)—결사로 이루어지는 구성이 같다.

다. 두 작품은 명사, 부사, 형용사, 동사 등의 구사법이나 표현 등에 있어 유사성이 많고 조사법에 있어서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라. 두 작품은 풍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상응하는 수법을 보여 준다.

마. 두 작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교유 관계와 작품 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곧 ‘영향’과 ‘모방’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유 관계는 문학적 영향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서 부차적인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이 면앙정, 식영정과 같은 동일 지역의 정자를 배경으로 하고 춘·하·추·동 사계절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쳤든가 후자가 전자를 모방한 것이라든가 하는 논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과 시간의 결합, 어구의 사용과 대구의 구사에 있어 나타나는 유사성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의 반론이 가능하다.

정교수는 작품 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비교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정교수가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는 객관적인 논거 역시 엄밀하게 따져보면, 호남가단 내부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작가들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이나 선입견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 ‘용’, ‘구름’, ‘피피리’ 등등은 크게는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韓·中·日 3국의 문학에서 자연을 노래하고 계절의 변화를 읊은 작품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제재인 것이다. 또한 이들 제재로부터 연상되는 이미지의 표출도 굳이 이들 두 작품만에 한정된다기보다는 조선시대 국문시가 전반에 걸쳐 산견되는 공통점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따라

6) 丁益燮, 앞의 책, 350쪽에서 353쪽 참조.

서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논의하고 ‘모방’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문학적 성취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문학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작품에 대한 심도있는 해석에 뒤따르는 것인 바에는 두 작품에 대한 정교수의 비교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술리 넘어가니 벗지라 업술소냐  
 불리며 득이며 이아며  
 온가갓소리로 醉興을 보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랴  
 ……(중략)……

江山風月 거놀리고 내 百年을 다누리면  
 岳陽樓上의 李太白이 사라오다  
 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송순, 면양정가)

엇그제 비즌 술이 어드록 니전노니  
 잠거니 밀거니 술궤장 거후르니  
 막음인 리친 시름 저그나 흐리노다  
 거든고 시음 언저 風入松이야고야  
 ……(중략)……

長空의 썸는 鶴이 이 골의 眞仙이라  
 瑤臺月下의 힘여 아니 만나신가  
 손이서 主人드려 닐오더 그더 권가 호노라

(정철, 성산별곡)<sup>7)</sup>(밀줄-인용자)

위 두 인용문에 대하여 정교수는 “풍류의 표현에서도 상응하는 수법을 보여 주고”<sup>8)</sup> 있다고 하였다. 아마도 ‘술’이 있고 ‘벗’이 있으며, 또 ‘풍악’이 어울어져 도도한 ‘취흥’ 속에 ‘근심·걱정’을 잊는 ‘풍류’를 읊고 있다는 점이 공통되고, 또한 이러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신선’ 또는 ‘詩仙’이라 일컬어지는 ‘李太白’에 비유하고 있는 점이 같다는 지적인 듯하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두 작품이 비록 유사한 소재를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작가의 관심과 표현의 방법이 사뭇 다르다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는 구절과 “손이서 主人드려 닐오더 그더 권가 호노라”는 구절을 서로 비교해 보더라도 전자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화자의 흥취에 주된 관심을 보이는 독백적 표현인 데 비하여 후자는 자연보다는 손과 주인이라는 인간 관계에 더 큰 의의를 둔 대화적 표현인 것이다.<sup>9)</sup> 풍류를 노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

7) 인용문은 정교수가 인용한 부분과 동일한 것임.

8) 丁筵變, 앞의 책, 351쪽 참조.

9) 시절에 있어서도 <면양정가>가 1인칭 화자로 일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성산별곡>은 두 화자가 등장한다. 그러므로 <성산별곡>은 대화에 의한 진행이 이루어진다. 김광조, “조선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연구”(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87) 및 조세형, “송강가사의 대화전개방식 연구”(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90) 참조.

으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작품 전체에 두루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산별곡>이 <면앙정가>의 단순한 모방이 아님을 입증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 부분에서도 송강은 자연과의 교감보다도 인간과의 교감에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아름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홀소나  
 오놀리 不뎡거니 내일이라 有餘하랴  
 이 뉘히 안조보고 저 뉘히 거러보니  
 煩勞호 마음의 벌릴 일리 아조 업다 (송순, 면앙정가)

山中의 벗이 업서 漢紀를 빠하 두고  
 萬古 人物을 거스리 헤혀 호니  
 聖賢도 만커니와 豪傑도 하도 할샤  
 하눌 삼기실 제 곳 無心호가마는  
 엇디호 時運이 일락배락 호얏노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들음도 그지 업다 (정철, 성산별곡)

<성산별곡>의 “애들음”은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면앙정가>의 “번로호 마음”과는 달리 “만고 인물”을 헤아리고 “일락배락”하는 “시운”을 근심하는 인간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연과의 교감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감흥에 주지가 놓일 때 자연은 그 자체로 풍류의 대상이자 목적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관심과 주지가 인간 사회 또는 인간 관계에 놓일 때 자연은 매개적 표현물일 뿐 그 자체가 풍류의 목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성산별곡>의 자연과 풍류는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례만을 비교 검토해 보더라도 <성산별곡>은 <면앙정가>의 영향을 받은 단순한 모방이라는 정교수의 주장은 근거와 설득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교수의 《호남가단연구》는 송강 문학의 특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 새로운 입론을 보여주시는 하였으나, 그 연구 성과가 호남가단이라는 집단적인 문학 활동의 공통질 추출에 집중됨으로써, 개별 작가로서의 송강의 문학적 특질을 해명하는 데에는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3

본격적인 송강 문학 연구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방면의 연구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업적의 하나로 조동일 교수의 《한국문학통사》를 들 수 있다. 앞서 거론한 정익섭 교수의 《호남가단연구》가 조선 중기에 호남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집단적 문학 활동에 주목한 업적이라면, 조교수의 《한국문학통사》는 같은 시기에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들을 비교하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교수는 그의 《한국문학통사》에서 ‘영남가단과 강호가도’, ‘호남가단과 풍류정신’이라는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이 두 지역에서 산출된 문학이 사뭇 다른 특질을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남가단의 공통되는 주제를 ‘道學’에서 찾고, 호남가단의 대표적인 주제를 ‘風流’에서 찾아 상호간의 변별점을 구분한 탁월한 입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교수는 이와 같은 영·호남 가단의 문학적 특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송강이 호남가단의 풍류정신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산가단이 별 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보여준 작품 세계가 모두 정철에 이르러서 풍부하고도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전에 볼 수 없었던 대단한 성과에 이르렀다. 정철은 관직에 진출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반생을 호남 사람으로 자처하면서 그곳에서 송순 이래의 전통을 잇고 성산가단의 풍류를 체득하는 동안에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수련을 쌓았다. 가사를 여러 편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시조 또한 문집에 실린 것만 해도 79수나 남겼다. 영남가단은 이황 이후에 그 맥락은 이어져도 차차 움츠러드는 모습이었는데, 호남가단은 정철에 이르러서 절정을 보인 점이 좋은 대조가 된다.<sup>10)</sup>

이와 같이 영남가단이 쇠퇴하던 시기에 호남가단은 절정에 이르렀다는 주목할 만한 문학적 사실을 지적한 조교수 역시 송강에 의해 호남가단의 작품 세계가 풍부하고도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지적을 하였을 뿐이다. 특히 송강이 “송순 이래의 전통을 잇고 성산가단의 풍류를 체득하는 동안에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수련을 쌓았다.”는 진술을 통하여 다분히 시기적으로 앞선 작가와 작품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모방’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호남가단이 정철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하여 조교수의 《한국문학통사》는 자세한 논의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각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함으로써 한국문학사의 큰 흐름을 보여준다는 저술의 성격으로 볼 때, 이러한 비판은 조교수가 받아야 할 몫이 아님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조교수는 고평과 상찬을 되풀이해 온 기왕의 송강 관련 연구 업적들, 또는 송강을 호남가단의 일원으로만 파악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는 수준에서의 논의를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강과 면앙정의 문학은 다같이 인간과 자연과 풍류의 문제를 작품의 주지로 삼고 있지만, 면앙정의 풍류가 자연과의 교감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비하여 송강의 풍류는 인간적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사뭇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별점을 마련하고 또 이를 준거로 삼을 때 송강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난 또다른 시가문학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컨대 송강과 더불어 조선시대 시가문학의 정점을

10)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서울: 지식산업사, 1983), 323쪽에서 339쪽 참조할 것. 직접 인용은 333쪽.

보여준 孤山 尹善道(1587~1671)와 蘆溪 朴仁老(1561~1642)의 문학 특질을 비교하고 그 문학적 성취에 대한 올바른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문학통사》는 송강과 고산을 다같이 풍류를 추구하고 표현의미를 살려 사대부 국문시가의 절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으로써<sup>11)</sup> 조선조 시가문학의 두 정점이 드러내고 있는 변별점을 크게 문제삼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송강 문학의 앞자리에 놓이는 면양정 송순의 문학과 그 뒷자리에 놓이는 고산 윤선도, 노계 박인로의 문학이 송강 문학과 어떻게 다르며, 그들은 각각 어떤 문학적 성취를 통하여 문학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들이 더욱 분명하게 천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송강은 시조와 가사를 다 다루었지만 고산은 전적으로 시조만 창작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송강은 특히 가사에 특징이 있었고 고산은 시조에 능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거둔 문학적 성취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문학통사》는 비록 조선시대 시가문학에 대한 탁월한 입론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익섭 교수의 《호남가단연구》가 미리부터 안고 있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조동일 교수의 《한국문학통사》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송강과 고산의 성취와 관련하여 우리는 앞서 살펴본 면양정과 마찬가지로 고산은 自然과의 交感을 통하여 풍류를 즐기고 있는 반면에 송강은 기본적으로 人間과의 對話를 통하여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연과 인간이라는 시적 대상이 엄밀한 경계를 가지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송강과 고산이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있는 제재들의 큰 흐름을 잡는다면 이러한 변별점을 찾아내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령 동일한 제재를 노래하고 있는 다음의 두 시조 작품에서 우리는 송강과 고산의 지향점이 각각 어디에 놓여 있는지, 또 각각의 문학적 특질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러 샐는 더 소나무 길 7의 설 줄 었디  
저근덧 드러혀 더 굴형의 서고라자  
솟 쇠고 도취 덴 분내는 다 디그려 혼다 (정철)

더우면 곳뛰고 치우면 님 디거놀  
솔아 너는 언디 눈서리를 모른는다  
九泉의 불희 고든 줄을 글로하야 아노라 (윤선도, 오우가 4)

이 두 작품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송강과 고산은 다같이 ‘소나무’를 시적 제재로 삼고 있으면서도, 고산은 소나무 자체의 절개 혹은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데 비하여 송강은

11) 윤선도에 대한 논의는 조동일, 《제 2 판 한국문학통사 3》(서울: 지식산업사, 1989), 267쪽에서 270쪽 참조.



인간 사회의 현실 문제 혹은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송강은 “더기 셋는 더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고산처럼 소나무 자체의 덕성을 노래하거나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꾀하기보다는 “웃 썩고 도치 멘 분내는 다 디그려 한다”는 인간 사회의 현실에 대한 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sup>12)</sup> 이처럼 송강과 고산은 동일한 자연의 소재를 읊으면서도 서로 다른 관심과 지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강의 인간에 대한 관심은 <훈민가>뿐만 아니라 다음의 몇몇 시조 작품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어화 버힐시고 落落長松 버힐시고  
 저근덧 두던들 棟梁材 되리러니  
 어즈버 朋堂이 기울거든 므서스로 바티려노  
  
 쓴 나물 떤온 물이 고기도곤 마시 이세  
 草屋 조븐 줄이 귀 더욱 내 분이라  
 다만당 님 그린 타스로 시름 계워 호노라

“낙락장송”을 바라보는 송강의 관심은 “명당”을 “바티”는 “동량재”에 있고, “쓴 나물 떤온 물”을 마시는 “조븐” “초옥”에서의 삶도 자연과의 同化가 중심이 되는 풍류보다 인간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름”은 자연과의 교감에서보다 인간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고산의 다음의 시조들은 송강 시조의 이러한 특징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잔들고 혼자 안자 먼 뵈홀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호랴  
 말슴도 우음도 아녀도 볼내 도하 호노라  
  
 보리밥 풋노물을 알마초 머근 후에  
 바회긋 楸マ의 슬꺨지 노니노라  
 그나른 너나른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이 두 작품에서 고산은 그리던 님을 만날 때의 반가움이 자연과의 동화에서 오는 즐거움에 비교될 수 없음을 노래하기도 하고, “바회긋 楸マ의 슬꺨지 노니”는 풍류적 삶을 노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고산은 풍류를 즐기되 자연과의 교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송강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사례만을 종합해 보더라도, 고산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하여 풍류를 즐기

12)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서울: 신구문화사, 1977)은 소나무를 ‘1. 절개와 지조의 상징, 2. 아름다운 자연으로서의 소나무, 3. 실용적인 면으로 본 소나무, 4. 사랑의 메타포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348쪽에서 355쪽 참조). 특히 고산의 이 시조 작품에 대하여 “관념적인 작품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나무를 사랑하는 정조(情操)가 잘 드러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있는 반면에 송강은 기본적으로 인간과의 대화를 통하여 풍류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강의 가사를 분석할 때 ‘성산별곡’과 ‘관동별곡’,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각각 한 묶음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성산별곡’의 경우 息影亭 주변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탄이 거듭되지만, 그 작품의 주지가 그러한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金成遠에 대한 동경과 선망으로 가득차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관동별곡’ 역시 관동지방 특히 금강산의 경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국문 시가의 자연 묘사 능력이 한시의 표현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지는 역시 자연보다는 인간 쪽을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3)</sup>

따라서 송강과 고산은 적어도 그 시적 제재 및 주지의 선택에 있어서 상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그들 문학의 특징을 제조명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시기적으로 송강 문학의 앞자리에 놓이는 호남가단의 여러 인사들과의 비교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준거를 마련할 때 송강 문학의 독자성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수 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인간과의 대화가 주된 관심사가 될 때, 또는 자연과의 교감이 주된 관심사가 될 때, 그 문학적 형상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송강과 고산 문학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만 유용한 과제는 아닐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학사 나아가서는 현대문학까지를 포함하는 한국문학사 전반의 전개 과정을 해명하는 데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보다 정밀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국문학계 전체가 힘을 기울여야 할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4

송강 문학이 인간과의 대화를 주된 관심사로 삼고 있다는 관점에 설 때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송강 문학이 보여주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면의 연구도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입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산별곡〉은 다른 강호가사가 일방적인 언술로 사회/비사회의 대립을 통합해 나간 것과는 달리 대화체 형식으로 그러한 두 관점을 병치시키고 생성하는 관념을 표출하였다. 〈성산별곡〉은 〈식영정이십영〉의 패로디라는 성격이 강하여서, 현재와 과거를 분리시키고 주인이 지니는 강호의 원체험을 과거이 추체험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인과 객 사이의 거리가 있는 언술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성산별곡〉은 직접적 보고의 형태 속에서도 과거/현재, 행위/평가, 선간/세간 사이의 대화가 이

13) 金聖基, 앞의 논문에서는 송강의 자연관을 논하면서 ‘自然에의 同化’가 아니라 ‘自然의 人間化’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필자의 입론이 漢詩 부문에서도 입증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루어진 것이다.<sup>14)</sup>

이와 같은 입론은 지금까지의 조선시대 시가 연구가 전적으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문학 연구에 있어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를 따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시가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 문제만을 계속 천착한다는 것은 도로에 가까운 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시가는 노래해야 할 그 무엇을 선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시가에서 끊임없이 산견되는 상투구나 아류작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sup>15)</sup>

따라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관점을 이동시켜야만 시가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마련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은 어떤 상황에서 언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하는 문학 작품 생성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정립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송강은 독보적인 말하기 방식을 창안해 낸 작가로 평가될 수 있다. 가령 영남가단이 보여준 말하기 방식과 비교할 때 송강의 말하기 방식의 특징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름 사름마다 이 말슴 드러스라  
이 말슴 아니면 사름이오 사름 아니니  
이 말슴 닛더 말오 비호고야 마로리이다 (주세붕, 오륜가 1)

고인도 날 볼보고 나도 고인 볼보  
고인을 볼보도 너던 길 알퐁 잇너  
너던 길 알퐁 잇거든 아니 너고 잇덜고 (이황, 도산 후유곡 3)

주지하다시피 이 두 작품은 모두 학문하는 생활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 慎齋 周世鵬은 사대부 계층의 수신 제가도 중요하지만 유교를 바탕으로 한 교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五倫歌〉를 노래했고, 退溪 李滉은 교화를 베풀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爲己之學에 힘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言志와 言學을 주지로 하는 〈陶山十二曲〉을 노래했다.

이와 같이 학문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노래하고 있는 표면상의 공통점을 지닌 이 두 작품의 이면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선택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신체가 사용하고 있는 경어체와 퇴계가 사용하고 있는 평교체의 어법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14) 조세형, 앞의 논문, 106쪽.

15) 이와 관련하여 구비공식구 이론을 도입하여 시조의 작시 원리를 해명하려는 시도로는 崔載南, “口碑的 側面에서 본 時調의 詩的 構成方式”(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83)과 B.C.A. Walraven, “한국시조문학의 퍼물라분석”, 《제3회 동양학 국제학술회의논문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85) 등의 논문이 있다.

맺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인 분석만으로도 修身과 教化는 道學의 兩面性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수신은 대자적인 지향의 문제이고 교화는 대타적인 지향의 문제이다. 대자적인 지향이 평교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대타적인 지향은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송강의 경우 이러한 투식을 버리고 독자적인 말하기 방식을 개척한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와 같다.<sup>16)</sup>

네 아들 효경 넓더니 어도록 비환노니  
내 아들 쇼혹은 모러던 口출로다  
어니제 이 두 글 비화 어덜거든 보려노

이 작품은 학문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노래하면서도 수신이라든가 교화라든가 하는 선택의 문제까지를 초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경어법을 사용하여 독자들과의 교감을 꾀하는 투식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자식들의 학업과 입신을 걱정하는 두 아버지의 대화단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새로운 말하기 방식의 창안에 의하여 보다 많은 독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송강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주제들을 새롭게 조명한 작가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남진 죽고 우는 눈물 두 것에 내리흘러  
젓맛이 짜다 호고 자식은 보채거든  
저놈아 어느 안으로 계집 되라 하는다

일종의 회작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작품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바로 〈훈민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새로운 말하기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sup>17)</sup>

일반적으로 수신을 노래할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굽히는[屈] 자세가 전제되고, 교화를 노래할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활짝 편[伸] 자세가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신재와 퇴계가 이러한 굴신의 정도를 역으로 활용하는 어법을 창안하여 노래를 불렀다면, 송강은 굴신의 정도를 가릴 필요가 없는 인간 관계가 노래 자체에 녹아들어가는 어법을 창안함으로써 이땅의 시가문학에 전무후무한 새 경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손과 주인의 대화로 전개되는 〈성산별곡〉을 비롯하여, 유배된 신하의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신원을 갈망하는 뜻, 버림받은 여인과 임이라는 중첩적인 관계를 통하여 표현하는 〈사미인곡〉이나 이별의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하여 드러내는 〈속미인곡〉에서도 송강 문학의 이러한 특질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정의섭 교수가 岐

16) 拙稿, “송강의 훈민가에 대하여”, 《진단학보》 42집(1976)와 “목소리 낮추어 노래하기”, 《백영경병욱 선생 10주기 추모논문집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서울: 집문당, 1992)를 참조할 것.

17) 자세한 논의는 앞의 논문을 참조할 것.

峰 白光弘(1522~1556)의 <관서별곡>의 모방이라고 평가 절하하였던 송강의 <관동별곡><sup>18)</sup> 또한 다음 인용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관서별곡>과는 다른 독특한 말하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西邊을 다 보고 返旆 還營하니  
 丈夫 胸襟이 저그나 ㅎ리로다  
 설미라 華表柱 千年鶴인들 날가타니 쏘 보안난다  
 어너제 形勝을 記錄하야 九重天의 스로료  
 未久 上達天門하리라 (백광홍, 관서별곡)

毗盧峰 上上頭의 올라보니 기 뉘신고  
 東山 泰山이 어노야 놉듯던고  
 魯國 조븐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넘거나 넘은 天下 잇세하야 께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던 알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너려가미 고이홀가 (정철, 관동별곡)

<관서별곡>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1인칭 화자의 단일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비하여 <관동별곡>에서는 송강 자신의 내부에서 분리, 대립하는 여러 화자들의 다성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sup>19)</sup> 이러한 차이는 기봉이 “세태보다는 경치에 관심”<sup>20)</sup>을 가지고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개인적 흥취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 반면에, 송강은 자연과의 교감보다도 인간의 문제를 주된 관심으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직 시도된 바는 없지만, 송강의 경우 학으로 상징되는 동물적 심상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에 고산의 경우 연꽃으로 상징되는 식물적 심상을 지향하고 있는 점 등 송강과 그 밖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변별점은 얼마든지 열거될 수 있을 것이다.

##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강 정철은 다른 작가들처럼 자연 속에서 노니는 인간의 풍류를 노래한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작가의 내면에 자리잡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심을 문학 작품을 통하여 표출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작품 내부의 인간 관계 설정을 통한 다성적인 목소리의 확보, 그 목소리들이 주고 받는 대화의 양

18) 경익섭 교수는 제목, 내용, 형식(구성, 노정전개, 표현수법)의 비교를 통하여 <관동별곡>이 <관서별곡>의 모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의 책, 371쪽에서 374쪽 참조. 반면에 <관동별곡>의 문학성을 탐색하고자 한 金炳國, “假面 혹은 眞實”, 《국어교육연구》 18~2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는 송강 가사에 대한 기왕의 고평과 찬사의 근거를 새롭게 밝힌 선구적인 업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 송강 가사의 대화전개방식에 대하여는 조세형, 앞의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20) 조동일, 앞의 책, 300쪽.

식을 통한 독자들과의 공감대 확산 등은 송강이 거둔 한국문학사에 있어서의 기념비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 언급한 송강 문학의 몇 가지 특질이 송강 문학 전체의 문학성을 해명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글은 기왕에 거론되어 왔던 송강 문학의 특질이 송강 문학의 ‘독창성’을 이해하고 그 문학적 성취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시대에 명멸했던 모든 작가가 문학사적인 조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듯이,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이 반드시 문학사적인 조명을 받아야 할 까닭은 아무데도 없다. 또한 송강은 유교는 물론 불교와 도교 사상을 두루 다루었다는 지적이나, 인간미와 자연미의 표출에 두루 힘썼다고 하는 식의 찬사는 결코 송강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까지의 국문학계는 어떤 작가의 장채만을 거론하는 작가론을 양산해왔고 작가론의 대상이 될 만한 작가의 경우 그가 남긴 모든 작품이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작품론을 양상해 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떤 점에서는 송강은 이러한 학계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 소중하고도 빛나는 문학적 성취의 면면들이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최대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거론한 몇 가지 새로운 단서들만으로도 송강 문학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지평은 넓게 열렸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국문학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엄청난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문인이라면 누구나 선형적으로 유교 사상을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송강이 앞선 시대의 문인들과 어떻게 차별되며 뒤따라 오는 문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때 송강의 문학성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國學資料院, 《松江文學研究論叢》, 1993.
- 權斗煥, “松江의 訓民歌에 대하여”, 《震檀學報》42집, 서울:震檀學會, 1976.
- \_\_\_\_\_, “목소리 낮추어 노래하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서울:集文堂, 1992.
- 金甲起, 《松江鄭澈研究》, 서울:二友出版社, 1985.
- 김광조, “조선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연구”, 서울대 國文學研究會, 1987.
- 金炳國, “假面 혹은 眞實—松江歌辭 關東別曲 評說”, 《국어교육연구》18·19·2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72.
- \_\_\_\_\_, “장르論的 관심과 歌辭의 文學性”, 金學成·權斗煥 編, 《古典詩歌論》, 서울:새문社, 1984.
- 金思燁, 《鄭松江研究》, 서울:啓蒙社, 1950.
- 金碩會, “鄭澈文學研究”, 서울대 國文學研究會, 1981.
- 金聖基, “松江의 漢詩에 나타난 自然觀”, 《人文學志》제 9 집, 忠北大人文科學研究所, 1993.
- 朴晟義, 《松江·蘆溪·孤山の 詩歌文學》, 서울:玄岩社, 1968.
- 徐首生, “松江의 前後美人曲 研究”, 《慶大論文集》6집, 慶北大學校, 1962.
- 徐元燮, 《歌辭文學研究》, 대구:螢雪出版社, 1978.
- 李能雨, 《歌辭文學論》, 서울:一志社, 1977.
- 李東英, 《歌辭文學論攷》, 대구:螢雪出版社, 1977.
- 李秉岐, “松江歌辭의 研究 1, 2, 3”, 《震檀學報》제4, 6, 7호, 1936. 4. 11; 1937. 5.
- 李相寶, 《韓國歌辭文學의 研究》, 서울:螢雪出版社, 1974.
- 정병욱, 《한국고전시가론》, 서울:新丘文化社, 1977.
- 丁益燮, 《改稿 湖南歌壇研究》, 서울:민문고, 1989.
- 鄭在鎬, “俛仰亭歌와 星山別曲의 比較 研究”, 《現代文學》통권 151호, 1967.
- \_\_\_\_\_, 《韓國歌辭文學論》, 서울:集文堂, 1982.
- 조동일, 《제 2 판 한국문학통사 3》, 서울:知識産業社, 1989.
- 조세형, “송강가사의 대화전개 방식 연구”, 서울대 國文學研究會, 1990.
-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京城:近澤商店印刷部, 1937.
- 崔載南, “口碑의 側面에서 본 時調의 詩的 構成方式”, 서울대 國文學研究會, 1983.
- 崔珍源, 《國文學과 自然》, 成均館大 出版部, 1981.
- Walraven, B.C.A., “한국시조문학의 퍼물라 분석”, 《제 3 회 東洋學 國際學術會議論文集》,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所, 1985.

## 《Abstract》

**A Study on Some Characteristics of Chong Ch'ol's Literary Works****Kwŏn Du-hwan**

Chŏng Ch'ŏl(1536~1593), a famous poet of the *Chosŏn-Dynasty* period, has been estimated as a respectable poet with his own poems from his contemporary time up to date. However, despite this reputation the aesthetic features of his poems, to be exact, have been not lightened still. So surveying closely some remarkable studies on his literature, I tried to reveal them in terms of two aspects, one side his ultimate concern and the other one his own way of presentation of emotions in his poems.

There is one remarkable research that treats him as one of the Honam poets group, in which Song Sun, Paek Kwang-hun, Kim Sŏng-wŏn, and so on, his companion poets, worked. But this study has a serious problem because it is apt to devaluate his own values. Though lightening freshly characteristics of his poems', it is not acceptable for us. Because his literary works have some different features from those of his companions. In brief comparison, his poems reveal some different characteristic features that their hero shows deep concern at human being itself or his relationships while those of his companions' at the nature itself surrounding their places.

There is another remarkable research on his literature, in which his poems are estimated highly as a pole of the poets group, so it is contrary to the former. However, this review also problems. It can not explain his peculiar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iterary works of Yun Sŏn-do, one of the famous poets of the later period of *Chosŏn-Dynasty*. Its estimation is equal to two poets and their poems but each has some different features. While two take the same matters, for example, birds, pine trees, moon, etc., each hero's ultimate concern does not have sameness. Besides, Chong Ch'ul take some original way of dialogue in his works.

If we can speak highly of Chŏng Ch'ŏl or his literary works, it all due to his unique aesthetic features, that is, his hero's showing deep concern at human being itself of its relationships and his poems' original way of dialogue.